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나를 멸망하며 나를 살리시니 내가 두려워하여 그를 찬양하며 이르되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스바냐 3:17

BEGINNING AT SNU

GOD'S VIEW

— 2025년 2학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개강예배 —

위치: 버들골, 풍산마당 *우전사: 26동 B101호
설교자: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찬양팀: 아이자야빅스틴원

2025.09.08
월요일 18:30

@snu_christianunion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연합사경회가 9월 8일 월요일 18시 30분에 풍산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 말씀은 조정민 목사 (베이직교회)가 담당한다. 주제는 ‘내가 길이요 진리다’이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6-10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홍종호
- 2면 중앙위원의 글 ... 김예진
학생기자의 글 ... 장동원
- 3면 음기연 소식 ... 김하은
국제학생 버스킹 후기 ... 전해원
- 4-5면 기독교인, 의를 묻다 ... 이경진 남명현 정명현
장동원
- 6면 대학촌교회 제주도 단기선교 ... 서옥희
미래 목회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후기 ... 박지우/변아정
- 7면 쥬이 여름 수양회 후기 ... 노이현
SFC 여름수양회 후기 ... 백유겸
- 8면 종강예배

교수칼럼

기후위기와 기독교인의 책무: 경제학자의 관점

기후위기는 경제문제다

2020년, 세상이 바뀌었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를 다시 쓸지 모른다. 감염병이 지구를 덮친 것이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예측할 수 없는 전파력으로 인류에게 질병과 사망을 가져왔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및 접촉 제한으로 경제 활동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계적인 유동성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일자리와 삶의 질이 추락하면서 각국의 정치 지형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달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인류는 최악의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인들은 40℃가 넘는 폭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호주는 한국의 2배 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는 재난을 겪어야 했다. 2022년 파키스탄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며 1,600명 이상이 숨졌다. 세계 인구의 2.8%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의 0.5%만을 책임지는 파키스탄 사례는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감염병, 경기침체, 극한기상이라는 3중 복합위기로 인해 인류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위기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수(人獸)공통감염병(zoonosis)이 확산되고 있다. 감염병은 관광, 요식, 항공, 물류 산업을 마비시키고 일자리를 앗아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석탄 이용과 벌목 등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탄소유발형 경제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탄소를 많이 배출할수록 기후변화는 악화되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과 기후피해가 확산한다. 이 악순환의 밑바닥에 탄소기반 경제가 있다.

기후문제와 경제문제의 상호작용은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피해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하고, 후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및 기업 차원의 노력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일컫는다. 달구어진 지구는 기후피해의 빈도와 강도를 높인다. 그 연쇄효과는 날씨에 민감한 농축산업과 어업은 물론, 야외 활동을 수반하는 건설업과 물류 배달업, 관광업에 이르고 있다.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총체적 대응 전략을 적응(adaptation) 정책이라고 부른다.

탈탄소 경제의 실현 없이 기후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지구적 차원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가, 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제무대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전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완화(mitigation) 정책이라고 부른다. 21세기 국가 안보는 군사력을 넘어 기후위기가 촉발한 식량 및 에너지와 같은 ‘신(新)안보’(emerging security) 이슈로 확장하고 있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에 의하면 2023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혁명기 대비 섭씨 1.48도 올랐다.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지구 온도 상승 임계점인 섭씨 1.5도에 근접한 것이다. 드디어 2024년, 지구는 산업혁명 시기의 지구 온도와 비교하여 섭씨 1.6도 상승했다. 2024년 스페인을 강타한 괴멸적 폭우와 커피 원두 가격을 폭등하게 한 브라질의 최악 가뭄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8년 여름, 한반도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다. 8월 1일 서울의 기온은 39.6℃, 강원도 홍천은 41℃를 기록했다. 지난 100년 넘는 기온 관측 이래 해당 지역에서 기록된 역대 최고 기온이었다. 2년 후인 2020년 여름, 대한민국은 최장 장마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부산 시내 가 물에 잠겼고, 전남 구례 지역시장이 물바다로 변했다. 54 일간의 장마는 기후변화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혹독한 현실임을 우리 국민에게 일깨워 주었다. 2022년 초 강원도 일대에 거대 산불이 발생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산불이 커졌다. 산림청은 불이 인근 원전과 LNG 저장탱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2023년의 여름 더위는 2024년 8월의 폭염으로 뒤덮였다. 2025년 선선했던 5월 날씨를 뒤로 하고 지난 7월 우리 국민은 때 이른 무더위로 전혀 없는 고통을 겪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다. IPCC는 1990년 ‘1차 평가보고서’(AR1)를 발간한 이후 5~6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2015년 발간한 5차 평가보고서에는 기후변화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나열되어 있다. 보고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20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extremely likely)라고 결론지었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95% 이상의 확률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석연료 소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가축 분뇨로 인한 메탄(methane)과 같은 온실가스는 지구를 가열하고 있다. 천연자원과 산림, 가축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인류 재앙의 서막은 이미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경제활동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지구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한 기독교 청년이라면 결코 이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15:19)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세상에 편만한 자기중심성과 탐욕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가 겪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창조와 청지기직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은 창조에 내재된 하나님의 목적, 특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간 창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인간은 빛, 물, 땅, 나무, 동물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일부다.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들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생물을 창조하셨다(창 1:24-25). 같은 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2:7). 인간은 땅에서 나왔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창조세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다”(창 1:27)는 점에서 인간은 독특하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다.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세계의 일부이나, 동시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명령을 주셨음이 분명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직접 주신 사명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신성한 명령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성경의 두 구절, 창세기 1:28과 2:15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 구절에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명령, 즉 “정복하라”와 “다스리다”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정복하다”는 “속박하다”를 의미하고, “다스리다”는 “깃뵈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단어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여기서 우리는 “일”과 “돌보다”라는 두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히브리어로 “일하다”는 “갈다”, “경작하다”, “섬기다”를 의미하고, “돌보다”는 히브리어로 “지키다”, “조심하다”, “보전하다”를 뜻한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리다”와 창세기 2장 15절의 “경작하다”를 동일한 우리말 단어인 “다스리다”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두 단어가 하나님께 주신 창조명령에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1:28은 창세기 2:15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균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나머지 창조세계를 착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환경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섬기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청지

2 서울대 기독교회 소식지

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중심주의(theocentrism)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와는 달리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와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창조세계를 잘 돌보아야 할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창 1:4, 10, 12, 18, 21, 25) 때문에 신실한 청지기로써 세상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다.

이제는 기독 청년과 한국 교회가 답할 때다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은, 최악의 문맹 국민에서 최고의 문해율을 자랑하는 국가로,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황폐했던 땅과 산림에서 녹색이 찬란한 아름다운 국토로, 독재의 고통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100년이 훌쩍 넘는 기간에 걸쳐 이뤄낸 성공을, 위대한 우리 국민은 단 60년 만에 만들어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숙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결코 녹록하지 않다. 90년대 이후 세계화를 기치로 형성된 국제경제 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각국도생(各國圖生)의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벽에 부딪힌 것이다. 국내에서는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의 쌍둥이 위기가 상수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글로벌 위협이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바로 기후위기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여름 한 철 겪는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환경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제·안보 문제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기후안보인 것이다.

생각해 보자.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지역 환경문제는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질수록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와 환경의 공존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지역환경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온실가스는 지구적 오염물질로서 어느 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배출되면 배출원에 관계없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주체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배출량을 줄여 주기를 기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이기심’은 자신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혜택만을 누리려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다. 전 세계 모든 소비자와 기업, 국가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 고수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부른다. 인류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서 생명피해와 환경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산업계, 언론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구성원 누구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헌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에나 통했듯 퇴행적인 경제 논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독 청년은 자문(自問)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위해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후변화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가꾸고 책임감 있게 돌보라는 창조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교회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위해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며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사명이다.

〈참고 자료〉

- 홍종호, “기후변화 대응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 특별기획: 기후위기 대응방향, 『국회포』, 국회 사무처, 2025년 1월.
- _____, “기후 위기와 청지기적: 크리스천 경제학자의 관점”, 제 10장, Jonathan Bonk 등 편, 『환경위기와 창조세계의 희망』, 두란노, 2024.
- _____,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다산북스, 2023.

홍종호(환경대학원 교수)

중앙위원의 글

안녕하세요, 응용생명화학과 김예진입니다. 2025년도 2학기 중앙위원 지원하고 서기연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기연 지원 자기추천서와 이 글을 쓰려고 하면서, 왜 지원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경험자와 대화를 나누며 결정했다면 더 멋진 사람이 됐을 거 같지만,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난 직감에 따라 그냥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생각 했을 때,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MBTI가 P이기도 하고, 늘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지원했습니다. 준비 부족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직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직감이란,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많은 경험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짧은 순간에 응축되어 드러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과 생각이 지원하는 결과를 이끌었는지 생각해 되고, 그 직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기로 결심하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중국학교와 국제학교를 다니며 주변에 크리스찬 친구 단 한 명도 없이 지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늘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중국어로 친구들과 대

화하고, 주일에는 한국어로 예배드리며 성경을 읽는, 언어와 환경, 삶의 영역이 뚜렷하게 나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와서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찬양하는 개강·종강 예배, 단과대 안의 기독인연합, 다양한 기독교 동아리,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크리스찬 콘텐츠...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 낯설고, 동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일인지 그제서야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세상의 끝없는 고난과 사탄의 공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능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지원하게 된 직감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계획에 없던 한국으로 대학에 오게 되면서 스스로 생활하는 첫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생활해야 했던 첫 학기는 쉽지 않다고 느끼면서, 왜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셨는지 이해 못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회에서 캠퍼스 리더라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각 대학교에서 하는 캠퍼스 모임을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이 존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났고, 기

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캠퍼스 복음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다름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캠퍼스 리더 예배가 지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행함이 전혀 없음이 보였습니다. 연약한 제 자신을 보면서 서기연 중앙위 모집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각 사람 안에 넣어 주신 생명을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올해 초, 이가서 2:10 말씀을 받았습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동행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함께 가기를 다짐합니다.

이러한 여정과 깨달음이 결국 지원하는 동기가 되었고, 서기연이 하는 사역에 동참할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제 안의 믿음이 자라나고, 제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진(응생화24)

학생기자의 글



사랑하는 진나빛을 떠나며

1. 2020년 6월, 코로나-19로 눈치가 보여 교회도 가기 어렵던 시절, 남명현 선배가 진나빛 기자직을 제안했다. 뭔지 잘 모르면서 일단 하겠다고 했다. -이 신문을 받아보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개·종강 예배 전에 받고 대중 버렸던 소식지의 이름이 <진리는 나의 빛>이었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그때가 마침 제100호였다. 그래서 신문 편집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100호 기념 문집 발행이었다. 덕분에 다른 기자들은 아마 누리지 못했을,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다 검토하면서 <진리는 나의 빛> 편집에 참여하는 행운으로 기자 일을 시작했다. 더군다나 동역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행운이었다. 목사님, 교수님, 이경진, 남명현, 최하영 선배와 이재백, 문예은, 조건호 등 동료 기자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다.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대학총교회, 읽어주시는 서기연 지체들, 그리고 기고 요청에 늘 성심껏 글을 써주시던 기고자분들까지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끝도 없다. 그렇다 보니 <진리는 나의 빛>은 필자가 본 것, 생각한 것, 느낀 것을 부담 없이 적을 수 있는 장이었다. 일이 힘들지 않았고, 많은 분이 응원해주시니 더 노력하고, 더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런 기회, 이런 동역자들, 이런 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낀다.

2.

<진리는 나의 빛>은 글로 서울대 기독인들이 만나 소통하는 장이다. 1면에는 교수님과 간사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생각해 볼 거리, 삶에서 돌아볼 것들을 전해 주셨다. 2면에는 서기연 중앙위 임원들과 학생기자의 생각이 담겼다. 그 뒤에는 여러 단체 그리고 개별 구성원들의 소식들이 담겼다. 8면에는 지난 예배 및 행사들에서 찍은 사진들이 실렸다. 아는 사람의 글이나 얼굴 사진이 나오면 반갑고, 모르는 사람의 글과 사진이라도 우리 공유하는 은혜의 발로들이기에 또한 반갑다. 이는 바울의 서신들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생각을 담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반가운 문안을 빼먹지 않는, 글을 통한 만남과 소통의 장. 이런 모습은 지난 몇 해 간 <진리는 나의 빛> 선·후배 기자들과 필자가 추구했던 바였다.

그 소통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이뤄졌다. 소통은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이를 넓혀가는 행동이라고들 한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 공통의 기반은 서울대도 아니고, 서기연도 아니고, 진나빛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보편성에 각자의 경험과 식견이라는 특수성이 모두 공유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독인들의 교제이고 소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됨이다. <진리는 나의 빛>에 나온 수많은 내용은 결국 전부 이를 위한 것이었다. 만남과 소통의 수단이라 하는 것들은 날로 늘어나고 편리해지지만, 그것들이 과연 진정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개인에 “최적화”되어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는 내용과는 오히려 절대 이야기하지 않게 하지 않는가? 한 해에 네 차례 나오는 진나빛은 종이장으로 되어 불편할지언정 잘 알지 못하던 다른 이들에게, 조금 다른 경험까지 글로 만나 하나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에 더욱 귀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진리는 나의 빛>에서 이뤄지는 경험의 공유가 시간과 내용의 측면에서 몇 가지 한

제가 있어 아쉽다. 시간 측면의 한계란 지난 경험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100호 기념 문집을 만들었고, 서기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호를 pdf 파일 형태로 공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호가 많고, 게시된 호라도 원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과거에 행사 진행은 어떻게 했는지와 같은 기독교연합 운영의 문제부터, 다른 선배들은 어떤 프로그램, 선교 활동, 고민, 신앙 여행들을 경험했는지와 같은 개인적 문제까지 분명 지체들이 참조할 수 있는 알찬 경험이 많은데, 그 경험에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용 측면의 한계란, 우리가 너무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문제의식이다. 내용을 돌아보면 은혜를 누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 비판, 실천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편집부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으나 늘 성공적이진 못했다. 우월한 필자와 달리 영준할 후임 지체들의 지혜와 <진리는 나의 빛>을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한다.

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사례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 의를 세우느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해주셨다. 옥희 선배는 당신 경험을 통해 신입생들을 현실적이고도 따뜻하게 연합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는 글을 주셨다. 이런 글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어 행복했다.

졸고 중에 독자들께서 기억해주신 글이 두 편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 나는 나뭇처럼 기다릴래요”(제106호)였고, 하나는 “북해도 비전트립 프로젝트”(제116호)였다. 전자는 화가 박수근의 삶과 예술, 그리고 신앙을 통해 인고(忍苦)를 이야기한 글인데, 이 글은 외로운 세월을 이겨내고자 하는 필자의 고백이나 기도이기도 했다. 후자는 북해도 출신의 기독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과 일본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세상을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낙인찍기보단 알아보고,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사랑하고 고마워도 떠나야 할 때가 있다. 필자는 이제 학부생이 아니고, 서기연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다보니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잘 따라잡지 못했다. 필자가 활동하던 적에 경험했던 문제를 또 겪으려는 것 같을 때, 조언을 해주거나 막아주지 못했다. 일에도 이토록 불만하니 이제 물러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우부와 동역해주시고, 조잡한 글을 읽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장동원(중어중문 석사과정)

3. 여섯 해나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를 했다. 그새 학적이 한 번 바뀌고, 거소가 세 번 바뀌고, 직장이 네 번 바뀌었다. 수업은 굶어졌고, 머리털은 알아졌다. 부엉이처럼 살던 사람이 닭처럼 깨서 출근을 준비한다. 이렇게 바뀌어 감에도 변함없는 것이 있었으니, <진리는 나의 빛>에 기고해주신 훌륭한 글들과 나의 불초한 글쓰기 실력이었다.

기고 받은 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글로는 민병곤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칼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제108호)와 서옥희 선배의 신입생 환영편지(제106호)가 있다. 민 교

음기연 소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음대 기독교 연합(이하 음기연) 대표를 맡고 있는 음악학과 24학번 김하은입니다. 음기연은 음대 내의 학생들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현재는 8명의 학생이 음기연에 속해 있고, 지도교수님이신 이민정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업에 지친 음대 지체들이 음기연 모임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얻고, 음대 안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나가기 위해 소망하며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신입생들에 대한 마음을 부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음기연이었습니다. 지금 음기연 모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신입생들이 음기연을 찾아오기는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표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표를 맡게 되면서 모임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 학기에는 2주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도 다 같이 논의하여 여호수아 말씀으로 정하고, 한 주에 2장씩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한 뒤, 정기 모임에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묵상 나눔의

앞, 뒤로는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깊이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은혜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누구보다 처음 대표로 서게 되어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던 저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저도 모르고 있던 제 속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앞으로의 음기연 활동들을 함께 있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6-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동역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 단체에서의 동역자들, 그리고 든든하게 함께 해주고 잘 따라와 주고 있는 음기연 지체들. 이들이 나와 함께 해준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고, 이들이 있기에 나는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음기연 모임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중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삶과 기도 제목 나눔 시간도, 다른 공동체보다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기에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너무 바쁜 음대 지체들을 볼 때마다, 그 안의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음대가 참 쉽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답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공동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넘어 ‘음악대학’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학기 마지막 모임에서는 특별하게 다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음대 지체들이 과열된 경쟁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음대 안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지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음기연의 모임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울대 음대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46편 1-2절)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기연과 각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기도제목들과 더불어, 앞으로도 음기연이 음대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모임이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나가는 귀한 동역자들 되도록, 음대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하은(음악24)

국제학생 버스킹 후기

친구야 국제 찬양 버스킹 하자



What is 국제 찬양 버스킹
지난 5월 26일 월요일 12:30-13:30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찬양이 자연어에 올려졌다. 이 사역은 서울대에 들어나는 유학생과 교환학생들의 모국어로 찬양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 다해, 꽃들도, 러브레터, 친구야 총 6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어나 영어가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로 불러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찬양, 안내, 음향, 촬영 등으로 서기연 지체들이 참여했다. 나는 찬양팀에 싱어로 참여했다.

#베트남어가 캠퍼스에 울려 퍼지기를

나는 중3-고3까지 베트남에 4년간 거주했다. 이후 동남아시아를 전공으로 고르면서, 베트남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기독교인 비율이 1퍼센트도 안 되는 베트남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는 매우 희박하다. 서울대에 유학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시기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찬양 ‘러브레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담은 찬양이다.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월은 바쁘지만...

3월에 사역 계획을 들었을 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집기간 중에는 다른 사역과 체력 배분으로 인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사역도 나의 욕심인 것 같았다. 기존에 5월 12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역은 내가 베트남을 가게 되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역은 5월 26일로 변경되었고, 마침 이사야서 통독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어가 다른 나라를 모두 모으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사66:18, 우리말성경]

언어가 다른 나라를 모두 모으시겠다는 하나님. 모으시는 곳이 서울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 사역이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합류했다.

#영적 공격을 인지하다

연습 시간도 스케줄이랑 안 맞지, 경험도 없지, 자신감도 없지, 언어도 모르겠지... 사역 내내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5월부터 주1회씩 모여서 연습을 했지만, 내 수업시간과 겹쳐 참여하지 못했다. 성악 전공, 인도자 및 세션 경험이 많은 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하는데, 정작 열심히 연습해야 할 내가 빠졌다. 사역 전날 한번 연습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 몸이 식은땀 범벅이었다. 이



때 마음이 어려웠지만, 다양한 언어의 찬양이 서울대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감격이 더 컸다. 그리고 내가 못해도 다른 팀원들이 많이 준비하여 부족함을 채워줘서 감사했다. 찬양은 운율이 있는 말씀

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가창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던다. 나는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다! 이렇게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잡았다.

#서울대=전 세계 선교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국제학생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서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서울대에는 100여개국 나라의 외국인 구성원들이 있다. 그중에는 포교 활동 자체가 금지된 국가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한다면, 서울대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 된다. 그렇기에, 서울대에서 국제 학생 사역은 세계 선교다. 이 설레는 세계 선교에 함께하지 않겠는가? 한국에 온 외국인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전혜원(아언문23)

기독교인, '의'를 묻다

“의(義)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무심결에 여러 의미로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난 겨울부터의 시간은 의 또는 정의라는 말을 특히 많이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필자는 그 시간들에 우리 기독교인은 의, 정의 같은 표현들을 과연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쓰고 실천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의의 참뜻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 의의 개념, 성경에서의 사례, 그리고 실천이란 주제로 논의를 열어보았습니다.

장동원 학생기자(중어중문 석사과정)

참석자

이경건(싱가포르 NIE 교수, 전 진나빛 편집인)

남명현(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과정)

정명현(정치외교 석사과정)

장동원(중어중문 석사과정)

['의'란 무엇인가?]

남명현

저는 의로움에 대한 성경의 원어 표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미슈파트, 다른 하나는 켈다카인데요, 둘의 용례가 다릅니다.

미슈파트의 원어 뜻은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어떠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관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재판 과정과 재판의 결과로 인한 판결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까지 담고 있는 뜻이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이의 눈물이 닦여지고 악인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정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미슈파트는 명사형이고 그 동사형은 사파트인데요, 동사의 목적어로 약자와 함께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재판하다”가 아니라 “변호하다” 이런 뜻까지 갖게 됩니다. 구약에서 재판장은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라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편 10:18)”라는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미슈파트가 법률적·사회적 정의에 가깝다면 켈다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 관계적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원뜻은 올바른 관계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에도 연결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과 또 올바른 관계를 보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란 사랑이겠지요.

신약 시대에 오면서 구약에서 나뉘었던 게 디카이 오쉬네라는 한 단어로 통합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쓰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런 약자들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바울 서신서에서는 켈다카, 즉 관계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적 차원에서의 미슈파트가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디카이오쉬네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 해주세요. 이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선언하시는 이 디카이오쉬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장동원

의란 단어의 동양적 전통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義)란 한자를 보면 위에 양(羊)을 의미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善), 미(美)와 같은데요. 다 가치 판단의 형용사들이 동시에 양을 바치던 고대 의례, 축제와 관련 있습니다. 유대교에선 번제를 드려 양고기를 불사르지만, 중국에선 양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양을 각각의 몫에 맞게 나누는 것, 그게 의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분배의 정의,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서 주로의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묵자 같은

경우는 “의는 이익이다(義, 利也)”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또 의는 예의범절, 의례 할 때 의(儀)와 통하는 글자입니다. 이는 그 행동하는 어떤 양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알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차적 정의, 제도적 정의와 관련 있지요. 한편 알맞음을 따져야 하니 시비를 판단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마음이 의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를 보면 ‘의’ 개념에 단호한 단정이 읽힙니다. 그리고 강렬한 적대감까지도 포함됩니다. 맹자는 그 외에도 폭군, 혹은 다른 학파를 의의 적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우월감도 포함한다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점은 동양인의 의는 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준거가 되는 유일신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만물을 주재하는 존재도 없거든요. 의의 기준과 내용은 전통과 관계 속에서 확립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양의 의를 정리하자면, 분배 정의, 절차와 제도의 정의, 단호함, 배타성의 이미지입니다. 동양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지를 같이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동양에서 태어나 성경을 읽고 교회 전통 속에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보니 동양 사유, 사회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아 성경을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거든요. 이걸 간섭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의 내용을 하나님이나 성경적 맥락에 두지 않고, 동양적 기준에 두고 이해를 하면 배타적인 태도로 상대를 대한다던가, 자신이 의의 기준을 세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과 잘못 결합해 나만이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우월하고 옳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간섭 없이 성경 속 의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명현

저는 서양 정치사상에서 의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떠올릴 텐데 플라톤도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방금 말했듯이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케로는 자연법사상을 강조하면서 정의라는 것이 자연법의 핵심이고 어떤 보편적 법과 도덕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세로 넘어가면 철학보다는 신학이 더 우선시 되었던 사회이기에 정치 철학적인 논의는 적지만, 그럼에도 이제 국가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이 결합하면서 정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국가가 전쟁을 정의롭게 치러야 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전론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지요. 비록 그는 두 도성을 얘기함으로써 세속의 삶에서의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국가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대로 넘어가면 정의라는 규범적 가치가 퇴색되거나 사라져 갑니다. 홉스나 로크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계약의 관점에서, 단순한 법적인 틀 안에서만 이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루소 같은 경우는 어떤 정의와 자유 시민적 평등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정의라는 논의, 그리고 정의와 좋은 삶이라는 이해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키아벨리입니다. 부국강병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에서 정의는 롤스의 정의론 혹은 매킨타이어의 덕윤리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긴 해요.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근대 국가들의 경쟁이 두 차례의 파멸적인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조금씩 짝이 뜹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가 정치 담론의 주류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의의 가치를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위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

습니다. 많은 근대인과 학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회의적인 시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신적인 존재, 종교가 정의가 없이 논의될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워르겐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가 2004년에 훗날 바티칸의 베네딕토 16세가 되는 사제와 대화를 하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가 없이 인간의 존엄과 도덕적 가치가 무의미하다.”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며 정의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어려운 점들이 그런 근거가 되겠지요.

의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고, 과연 정치에서의를 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붙잡고 계속 나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 '의'의 구절들]

이경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떠올라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흥미로운 것은 “의”라는 것이 믿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믿음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인격적인 분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관이니라”(창 15:1)라고 말씀하세요. 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창 15:4-5)라고 하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때때로 ‘분위기’나 ‘따뜻한 감정’ 중심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마치 지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인데,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한 언어 그대로 듣고,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식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의”(righteousness)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 ‘네 고백이 옳다(right)’고 인정해주시는 거죠.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주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고도 하시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마 6:31)라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 필요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포함한 실재적이고 물질적인 필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미래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생활적인 차원까지 포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명현

저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라는 말씀도 자주 떠올라요.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기준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은 데서 비롯된 것이예요.

그러다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건(창 22장)에서 이 문제가 심화되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의로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나 도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 보이는 장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철학자 겸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종교적 실존은 윤리적 실존보다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종교적 삶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오히려 초윤리적 차원인 거죠.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정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거나, 특정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교회 안팎에서 사회 정의나 약자 보호를 이야기할 때,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논리로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절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단정적으로 규정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판단할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선불리 단정하기보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정명현

겸손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불의가 존재하고, 때로는 무작위와 혼돈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로우시며 정의를 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신 10:18). 그 정의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정의의 주관자이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창 1:27), 세상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정의의 실현을 고민하고 실천해야죠.

이때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정의를 원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기 위해서요. 솔로몬의 재판이 떠올라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은 선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진짜 어머니를 밝혀냈죠(왕상 3:16-28).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정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원

제가 사전에 공유드린 부분 가운데, 제가 늘 고민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전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움이 주어진다, 이런 설교의 뉘앙스를 주로 들었는데 갑자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강한 선언을 접했을 때,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무엇인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도대체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의인은 없다”고 선언했을까?

근데 요즘은 가장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앞에서 말씀해주신 겸손과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주장 앞에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희가 그렇게 확신하는 그것이 진짜 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깨우쳐 주거든요.

이경건

이어지는 로마서 4장 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롬 4:18-22)

하나님의 약속을 명제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붙들었다는 점을 보여 줘요. 사실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 이미 부부가 다 늙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세요(창 15:5).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저는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봐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의 하나님]”(롬 4:17)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옳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또 한 구절은,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롬 4:25). 이 사건은 단순히 죄 사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의(self-righteousness)”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말할 때 “내 죄가 해결되었다”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내 죄는 해결되었지만 내 의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나는 의롭다”라는 자기 의가 남아 있으면, 사람이 오히려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내 의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자리잡을 수 있어요.

남명현

로마서와 가장 유사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의 초기 서신 가운데서 이신칭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서신이기도요. 특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똑같은 논의가 반복돼요.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울의 의에 관한 논의가 십자가의 연합 고백으로 맺어진다는 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의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교리적 논쟁이나 법정적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삶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나는 이야기를 돌아보면, 사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의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남명현

우리가 속해있는 서울대라는 공간이 사회 엘리트,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공간이라는 게 외부에 나오니 잘 보여요. 그러니 부조리 같은 것도 더욱 잘 보이구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까를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주변에 물었는데, 얻은 답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전제, “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구조적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악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의로워지려고, 의롭게 행위하려고 하는 자체를 우선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구체적 실천인데, 실제적인 실천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각자 방식으로 분투하면서도 계속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에게서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마지막 때 다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요.

이건 다른 숙명론과는 달라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태도는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정의가 좌절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정의를 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분투하는 것이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현

이 실천의 문제가 참 어렵죠. 최근에도 개인적인 고민과 좌절을 많이 느껴요. 현실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그래도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천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크 엘렐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해요. 또 사역자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도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 “신실한 현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천을 완벽히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가려 애쓰는 모든 과정을 의로운 여정으로 보신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일상 속에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고, 내 손에 닿는 것이 있다면은 매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건

실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 역시 요즘에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신학적인 탐구도, 신앙서를 통한 배움도 귀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요. 성경에서 도출해낸 이론이나 해석보다, 성경적인 무엇보다, 그냥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살고 싶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신 사실입니다(렘 9:24).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수직성(하나님과의 관계)”과 “수평성(이웃과의 관계)”을 함께 붙드는 것이 의로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연합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의 실천 방식이라고 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지키면서도, 정통 신앙 안에 있는 다른 공동체의 색깔을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의 표현처럼 “네 장막 터를 넓히며 네 휘장을 아끼지 말라 내 줄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나무가 줄기만 굵은 것이 아니라, 가지와 잎이 퍼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듯이(마 13:31-32), 교회의 신앙도 수직성과 수평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믿음·소망·사랑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현실 속에서는 믿음만 강한 경우도 있고, 소망만 앞선 경우도 있고, 사랑만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해요. 결국 세 가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신앙은 아주 단순한 몇 가지 키워드를 반복하며 붙드는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진리, 은혜. 이 단어들을 붙들며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라는 주제를 읊조리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제게는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현대, 특히 2020년대 들어와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좋습니다.

대학총교회 청년부 제주 단기선교



2025년 7월 16일-19일 대학총교회 청년부는 제주 애크업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서 사실상 처음 가는 선교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주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교 두 달 전부터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형제 중에 제주도 출신 역사학도가 있어서 선교지 제주도의 특성과 기독교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짧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4.3 때 기독교인들, 특히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들었을 때, 선교의 무거움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선교란 시공을 초월하는 메시지만 복음을 그 보편성에 의지해 퍼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선교 역시 역사적 맥락 가운데 있구나, 관악청년부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등을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남읍교회는 본당 십자가가 무척 아름다운 교회로, 주로 노인분들이 사시는 지역마을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한 일은 방충망 수리작업, 농촌봉사, 마을잔치입니다. 별레가 많고 바람이 거센 제주도에서 방충망수리는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방충망 교체는 서울에서 미리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따라할 때만 해도 어설퍼지만 점점 실력이 늘게 되면서 끝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하이라이트였던 마을잔치는 준비한 공연과 선물로 주민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공동체에는 MBTI E를, 재롱의 달란트를 받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각자 맡은 공연을 위해 코인노래방에서 맹연습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마을잔치 춤 연습을 하느라 처음으로 지하 연습실에도 가보았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아이돌 연습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잔치날 당일에는 공연 전후로 많은 주민분들과 가까이에서 이야기도 하고 은근슬쩍(?)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대개 말이 없으셨고, 할머니들은 잘 웃으시고 호쾌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면 그때에는 더 친근하고 반갑게 서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욱희(국어국문 박사과정)

미래 목회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후기(1)

안녕하세요. 저는 CCC와 공기연애 소속되어 있는 우주항 공공학전공 19학번 박지우입니다. 저는 2022년 부르심을 받고 약 2년간의 긴 시간 기도와 고민의 시간 이후에, 지금은 신대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지, 신학자가 될지는 아직은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목회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은 24년 2학기, 중앙위원으로 대학총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서기연 사역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임현우 목사님께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마음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오랜 기간 저에게 확신을 주지 않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2가지 길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알아보면서도, 전공 공부와 진로 탐색을 놓지 못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신대원 진학을 결정하면 이 고민이 끝날 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목회와 학문 2가지를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끝나길 바라던 시간도 있었지만, 멘토링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차동혁 목사님은 신학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두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 첫 발걸음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나아갔듯이, 내 소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의 이끄심을 묻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어떤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의 길을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이외에 실제적인 준비에 대한 도움을 얻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이 목회 현장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학자의 길에 대해서는 더 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소명의 길을 시작하면서 무작정 철학과 종교학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멘토링 시간을 통해 손은실 교수님과 이두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대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어떻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철학을 왜 배워야 하고, 고전은 왜 읽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부르심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분의 서울대 출신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대안 목회, 대학 교수, 성서 번역가. 네 분의 말씀이 다 달랐고,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척교회의 담임목사님이신 차동혁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 목회자들도, 전도사, 부목사를 거쳐 담임목사 청빙이라는 일반적인 루트를 가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안 목회를 하시는 황인성 목사님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역을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찾아

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은실 교수님은 신학대학이 아닌, 서울대라는 일반대학, 영적으로 가장 척박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학문적인 방법과 언어로 시작하여 가장 세속적인 말로 풀어내시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성서공회의 이두희 목사님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가장 잘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내 책상 위의 성경이 어떤 노력으로 번역되고 보급되는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조언들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어떤 길로 이끄실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저도 목회자로서, 혹은 신학자로서 되고 싶은 롤모델이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전 세대와 선배들에 나를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이끄실지 기대하는 마음만 남은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제 막 비전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와 기대 속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허락하시고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 교수님, 그리고 대학총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우(항공19)

미래 목회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후기(2)

안녕하세요. 저는 CCC에서 섬기고 있는 의류학과 20학번 변아정입니다. 저는 지난 25-1학기, 대학총교회에서 진행되는 목회자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현재 CCC 간사의 삶을 꿈꾸며 준비 중입니다. 그런 저에게 대학총교회 임현우 목사님께서 목회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해 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멘토링 프로그램은 목회자/사역자를 꿈꾸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서울대를 졸업하신 목회자분들의 만남을 통하여 목회 여정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막 사역자로서의 첫걸음을 떼려는 저에게는 쉽게 뭉기 어려운 분들이었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총 네 분의 서울대 출신 목회자분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뵈었던 분은 고척교회 담임목사이신 차동혁 목사님이셨습니다. 정통적이고 일반적인 목회자의 여정을 살아오신 목사님께 현실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의 삶을 앞둔 저에게 다양한 조언들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을 때, 제 고민과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 중간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는 고민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다양한 조언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후회 없이 사용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현재 상황이나 능력,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게 지금 주어진 소명과 부르심에 집중해야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뵈었던 분은 황인성 목사님이셨습니다. 황인성 목사님은 마을 목회와 대안 목회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려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해오셨는지 보며 제게도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되고 가슴이 뛰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삶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전도를 위해 책방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떠한 형태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삶과 가장 유사한 목회 여정을 지나오신 목사님의 시간을 통해 위로와 격려,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뵈었던 분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손은실 교수님이셨습니다. 손은실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한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한 명씩 들어주시며 각자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도 하는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던 분은 대한성서공회 번역 실장으로 계시는 이두희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도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미전도 종족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감사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두희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달란트와, 배우게 하시는 모든 것들에는 언젠가 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 일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역자의 길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을 뵈며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한 걱정보다 설렘과 기대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와 조언을 얻었고, 덕분에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학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시는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사역자의 삶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대학총교회와 임현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아정(의류20)

조이 여름 수양회 후기

Visitor에서 방장으로



저는 2024년 여름 처음으로 조이에 왔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에 조이 소속이 아닌 VJ(Visitor JOYer) 신분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직후에 조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누리고 있는 대부분이 공감하겠지만, 돌아보면 이 선택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망설임 없이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이웃이 되'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조이 수양회는 방 단위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장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 간사님의 권유가 있었고 언젠가 방장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언젠가 수양회에서 섬기다면 다른 부서가 아니라 방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예배 시간이나 프로그램 시간에 진행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방장은 방원과 동일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수양회 일정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가 이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줄지에 '이웃이 되'를 더 압축해서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양회에 앞서 가장 어린 방장으로서 경험도 부족하므로 걱정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많은 조이어들이 입을 모아 '조이의 꽃은 수양회이고, 수양회의 꽃은 방장'이라는 말을 하므로 수양회를 더 잘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의 저녁 예배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본문으로 네 번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 하시며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제약이 있는 가운데에도 복음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일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일은 모양이 없고 빈 것에 모양을 내고 채우는 모든 것이라는 묘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넷째 날에는 다시 약속된 낙원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후 제가 느

낀 '이웃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의 형상을 본떠 지은 타인에게 흘러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이것을 이웃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말씀이 아니라 방장을 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막상 수양회가 시작되자 방장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괜찮았습니다. 어색하고 나뉘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첫날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일정이 끝난 후 방장부 모임에서 다른 방장들의 나눔을 들었는데, 빠르게 친해지고 활발하게 지내는 것 같은 다른 방과 다르게 우리 방은 여전히 친밀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명의 방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나눔 때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흐름을 끊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점 답답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셋째 날 저녁 예배 전의 오픈 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일그러져 있고 공허한 저의 마음에 일하셔서 마음의 모양을 내고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셋째 날 예배 후에 내 안의 죄를 직면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 방에서 내가 한 방원의 사소한 부분으로 미워하고 거슬러한다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제 안의 죄와 그렇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방장으로 좌절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수양회의 말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맞닿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수양회의 꽃은 방장'이라는 말이 방장으로서 힘들고, 좌절하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조이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이 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로 남았습니다.

노이현(전기24)

SFC 여름수양회 후기



이번 SFC 대학생 대회는 제 52회 전국 대학생 대회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호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고신 교단과 SFC가 선교 한국을 섬기게 되면서, 대학생대회 주제도 선교와 관련된 주제 "선교: 복음을 기뻐하라, 선포하라, 살아내라"라는 주제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대회가 마친 이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 모교회 청년부에서 필리핀 비전트

립을 다녀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학생 대회를 통해 비전트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경건회 말씀을 통해 복음을 비전트립에서 어떻게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Good News)이기에 이를 어떻게 더 기뻐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경건회 내용의 핵심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방법론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신 경험이 있으셨기에, 선교의 현장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쁨'에 대한 부분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을 저도 최근에 누리게 되면서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이 없었던 시절이 매우 길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였기에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매우 좋아 보였지만, 속은 매우 썩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기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신앙을 바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저보다 봉사를 안 하고 교회에 덜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 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저에게 가장 싫었던 것은

돌이켜 보면 "은혜"였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모두 제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하는 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많은 질투까지 느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전에 제가 정죄하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이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복음을 통해 이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를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막연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이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누리고 있는 신앙적인 즐거움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이를 삶에서 누리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학생대회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제 주변인들에게 제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보여주고 싶고, 이들도 같이 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번 대학생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도제목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곧 군대를 입대할 예정이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제목도 가지고 계속 기도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 대학생대회를 마치면서 제가 가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저의 이러한 다름은 다름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한 것임을 제 주변인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제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군입대 전 마지막 대학생 대회, 단기선교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였지만, 제 신앙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유경(체교21)

종강예배



기도하는 모습



김단일 목사님의 설교



대표기도



찬양하는 모습(1)



찬양하는 모습(2)



찬양선교단의 특송



예혼 식교제



음기연 식교제



축복하는 모습(1)



축복하는 모습(2)



통역팀